

| 제 4 장 |

탈북포로들의 억류 중의
삶에 대한 증언들

탈북포로들의 억류 중의 삶에 대한 증언들

여기에서 실제로 포로교환 때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78,636명 중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발로 2010년까지 탈북해 온 78명의 국군포로(그 후 사망한 10여명을 제외한 51명이 이 글을 쓸 때 생존중임)의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이 어떠한지는 별첨의 증언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특히 고 조창호 중위(2006년 사망)와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늘 접촉을 가졌으며 또 사망 당시 그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향군인회 회장(會葬)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도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처음이었던 재향군인회장으로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인과 육군종합학교 동창이었던 이완춘(李完春, 퇴역 중령)씨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여하튼 필자는 그의 생존 중에 미 국회에서의 증언을 위하여, 또 한국 국회의원들과 각 요로 인사들을 만날 때 늘 그를 데리고 다녔기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조창호씨의 한국군 입대로부터 탈북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여기에 고 조창호 중위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요점만 추려 충실하게 옮김으로써 대다수 억류 포로들의 생활을 추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가능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옮긴다:

a) 고 조창호 중위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까지의 이야기

조창호씨는 연세대 교육과 1년때 6.25가 일어나 육군종합학교에 24기로 입교, 2개월 훈련 후 또 다시 포병학교에서 2개월 더 보충교육을 받고 1953년 포병 소위로 임관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군 제9사단 포병 제2대대에 배속돼 관측장교로 근무하던 중 중공군 제5차 총공세 때 중공군의 급습으로 전 부대가 붕괴되었다.



▲ 조창호 중위

조창호 소위는 며칠동안 산 속에서 해매다가 마침내 어느 민간 독립가옥을 발견하고 그 집에 물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집 방 안에 있던 중공군에게 발각 생포되었다. 그는 북한 인민군에게 인계되는 순간 도주하다가 또 다시 인민군에게 잡혀 죄질이 나쁜 악질분자로 분류되어 아오지탄광에 강제 중노동자로 보내졌다.

당시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들과 북한정치범들이 그 탄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입소 당시 국군포로들에게는 이불도 베개도 치솔, 치약도 주지 않았다. 그나마 북한 출신 정치범들에게는 입마개(Mask)가 별도로 공급되었는데 흑한의 아오지에서 이불, 베개 하나 없이 지내면서 한 5년쯤 되니까 탄광의 지독한 먼지에 기관지가 막혀 숨쉬기도 말하기도 힘들게 되었고, 10년쯤 되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입안의 전 치아가 한꺼번에 몽땅 다 빠져버렸다고 한다.(12년동안 치솔 한번 못 썼다고 함).

12년뒤 탄광에서 풀려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남한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후 첫 아이로 남자 쌍둥이를 낳았고, 몇년 뒤 딸 하나를 얻어 2남1녀를 데리고 굶주림과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오순도순 살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사회의 제일

밀바다에 속하는 국군포로 출신들부터 식량배급이 줄기 시작, 끝내는 완전히 배급을 타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든 자력으로 식량을 구해야 했다. 조창호씨는 두 아들과 집 뒤에 있는 산을 일구어 강냉이와 옥수수 등을 심어 간신히 아사를 면했다.

하루는 부인이 갑자기 없어져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것이었다. 여러가지 수소문 끝에 당의 보위부에서 연행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 부인이 매달 한번씩 남편의 동태를 당에 보고(밀고)해야 하는 것을 몇 달 동안 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남쪽을 그리워하다:

그러던 중 먼지 많은 탄광에서 마스크 하나 없이 너무나 먼지를 많이 마셔 호흡곤란을 일으켜 기폐증이 되었고, 그 위에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아무래도 곧 죽을 것만 같아 하루는 뒷산에서 땅을 일구다가 따뜻한 양지에서 두 아들과 함께 쉬면서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으면 여기 이 따뜻한 곳에 묻어다오. 그리고 비문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다만 ‘남쪽 에서 온 사람’이라고만 써달라” 고 했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숙연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생활 중에 1987년쯤 된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 “당신 남쪽 출신이 아니요” 하고 문기에 처음에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뭇인지 잘 몰라 우물쭈물했더니 “당신 서울에서 왔소?” 라고 문기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자기가 서울을 종종 오가니까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당신 소식을 전해 주겠노라며 친척주소를 문기에 일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 한에서는 서로가 감시하고 밀고하기 때문에 서로 경계한다고 함) 그 뒤에 또 또 서울의 친척에게 안부를 전해주겠노라고 말을 건네 왔으나 경계심이 앞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탈출 계획:

그 뒤에도 그 사람이 그 곳을 지날 때마다 때때로 찾아와 같은 권유를 하기에 어차피 얼마 못 살 터이니 보안당국에 잡혀가 맞아죽으나 여기

서 얼마 못 살고 죽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돼 “그러면 우리집에 연락을 좀 해달라” 며 자기 큰 누나가 있는 성신여대 주소를 알려주고 편지를 전해달라면서 그 편지 속에 자기가 늘 품고 있던 어머니 사진을 동봉해 보냈다.

서울에서 당시 성신여대 문리대 학장으로 있던 큰 누나는 그 편지와 동봉해온 어머니 사진을 보고 자기 동생 창호가 틀림없다고 믿고 그 사람(브로커)을 따라 북경을 거쳐 두만강 저쪽에서 북한 아오지의 조창호 집이 보이는 데까지 갔다.

큰 누나를 안내한 브로커는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강을 건너가 동생을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지점까지 데리고 나오겠다” 고 했으나 누나는 자기 동생 신변의 위험을 염려해 그대로 돌아왔고, 그 뒤 브로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불 (액수는 필자에게 말하지 않았음) 대련(大連)에서 야간 밀항을 주선해주어 똑딱배 바닥에 숨어 탈출했다고 한다.

자식들과의 가슴 찢어지는 이별:

탈출하기 직전 자기 아이들 셋을 불러 같이 가자 했더니 아들들이 “아바이 혼자 떠나시라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중간에 붙잡힐 위험이 더 많으니 아바이 혼자 떠나시라오. 우리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갈 것이니 빨리 여기를 떠나시라오” 하기에 그러면 막내딸이라도 같이 데리고 가겠노라 했더니 그것도 위험하다며 한사코 혼자만 떠나시라고 밀다 시피하여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며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후일을 기약하며 혼자만 탈출 했다면서 눈물을 씻기에 필자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꿈에 그리던 남한에 도착:

그 브로커의 주선으로 깜깜한 밤중에 허름한 목선 똑딱배를 타고 선창 밑바닥에 숨어서 몇시간을 오는데 갑자기 배가 정지, 한국 해양경비대의 검색에 걸렸다.

해양경비대는 선창에 숨어있는 조창호를 발견, 몇가지 신문 끝에 탈북 국군포로라는 것을 알자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지면서 자기 선박으로 모 시겠다고 며칠 인천까지 그 경비선으로 호송해왔고 곧 병원으로 보내져 신체 검사 등을 다 마치고 그 이튿날 국방장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 다음날 귀 대 보고 겸 제대식을 마쳤다.

(*** 필자가 2004년 11월 4일 조창호씨를 삼일빌딩 루프 가든(Roof Garden)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심한 기폐증으로 목소리를 알아들 을 수 없어 부인(탈북 후 남한에서 재혼했음)을 통하여 간신히 의사소통 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종내는 이 기폐증이 폐암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되어 2006년 11월에 작고하였음.)

북한에서의 완전히 격리된 광부생활:

조창호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탄광에서 일반사회와는 완전히 격리 되어있어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포로교환이 있었는지도,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일은 전혀 알 길이 없었고, 또 그 누구도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나 송환문제로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국군포로들에게는 다 같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들이 자신해 남겠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가령 어느 지역에서 국군포로들을 다같이 모아놓고 “여기 이 중에서 남쪽의 미 괴뢰정부에게 돌아가고 싶은 놈은 지금 손들어보라” 했을 때 살기등등 하게 총칼을 겨누고 둘러 서있는 인민군들 앞에서 죽 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누가 감히 손을 들 수 있었겠는가” 라고도 덧붙여 말하였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남겠다고 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열렬한 공산분자였을 것이고 만일 있었다면 극히 적은 숫자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억류 국군포로들은 거의 다 남한에 가족, 일가친척을 둔 남한출신들이었기 때문이다. (***) 고 조창호씨의 포로생활과 탈출에 관하여는 ‘ 돌아온 망자’ 라는 제목의 비디오가 있으니 구해보시기 바라며 못 구하

시면 e-mail 주소: chungpow@hotmail.com 혹은 tombyun@yahoo.com
이나 미국 전화 714-717-1121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의 변홍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면 무료로 보내드린다.)

b) 기타 탈북 포로들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수기들:

현재 탈북 국군포로들 중에서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한 수기가 단
행본으로 나온 것으로는 유영복씨의 ‘운명의 두 날’ (원북스 2011년 발
행), 영문판으로는 ‘Tears of Blood’ (번역 Paul T. Kim)이 있고, 또 허
재석 씨의 ‘내 이름은 똥 가나새끼’ (원북스 2008년 발행)이 있다. 기타
는 별첨 증언집을 참고하시면 되며 그들의 고된 삶은 고 조창호씨의 이야
기와 대동 소이한 것으로 생각된다.